

■ 해수욕장 개장 첫날, 불시 음주운전 단속해보니...

곧 들통날 핑계 “딱 한잔 마셨는데...”

경찰, 지난 1일 3명 적발
오토바이 단속도 병행

“휴가철 주요 피서지 중심
음주단속 강화할 방침”



지난 1일 제주도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불시 음주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김도영기자

말 집에 갔다가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4잔을 마셨다는 60대 남성, 가족 식사에 이은 음주운전은 ‘면허정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제주도 이호테우·함덕해수욕장, 서귀포시 대정 하모해수욕장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제주지역 12개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함과 동시에 야간 계절음식점이 운영되며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서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시작 10분 만에 60대 남성 A씨가 적발됐다. A씨는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딸의 집에서 저녁을 먹

으며 소주를 마셨고 하귀리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가 측정됐다.

이날 음주단속에도 차 안의 공기를 빨아들여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복합감지기가 이용됐다. 때문에 동승자나 택시 승객 등이 술을 마신 경우 복합감지기가 반응하기도 했지만 운전자에 대한 재측정을 통해 단속을 이어나갔다.

오후 10시쯤 40대 남성 B씨가 음

주 반응이 감지돼 적발됐다. B씨는 오후 6시쯤 직장에서 소주 한 잔을 마셨다고 말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84%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B씨는 그제야 낮에도 술을 마셨고 전날 밤에도 술을 마셨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0.084%의 측정 수치가 너무 높으며 체형 측정을 요구해 경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이날 음주단속에서는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도 빠짐없이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2명이 무면허 상태로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전동 스쿠터를 운행하다 적발돼 범칙금 10만원 부과와 함께 보호자에게 인계 조치됐다.

해수욕장 개장 첫날 제주 전역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는 면허 정지 2명, 면허 취소 1명 등 총 3명이 적발됐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술을 마신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 정지 126명, 면허 취소 192명 등 총 318명을 적발했다. 이는 하루 평균 5.2명이 단속된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4% 증가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노지수박 수확하는 들녘 3일 제주도 애월읍 구림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잘 익은 노지수박을 수확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백록담 일대에서 쓰레기 5t 나왔다

세계유산본부 1일 환경정비
상반기 한라산 탐방객 43만명

한라산 백록담 일대에서 환경 정비 작업을 벌인 결과 하루 만에 무려 5t가량의 쓰레기가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1일 백록담 일대에서 대대적인 환경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비 작업을 벌인 결과 하루 사이 5t 쓰레기종량제 비닐봉지 400여 개, 마대 3개 등 5t 정도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한라산 탐방객은 약 43만명에 이

다. 이는 지난해 같은날 기준(약 32만명)에 비해 37%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날 행사에선 한라산 정상을 찾은 탐방객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퇴거시키는 캠페인도 병행됐다.

유산본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정비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승식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탐방객들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며 “탐방객들은 쓰레기는 반드시 퇴거해가고 정해진 탐방로로 보행해 다시 찾고 싶은 청정 한라산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기초질서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국립공원 확대 계획 ‘백지화’

도,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주민들 “재산권 침해” 반발

제주도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제주국립공원 확대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 도립공원과 증산간, 오름, 습지 등으로 국립공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환경부는 이듬해 용역을 거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을 610km²로 제안했다. 당시 환경부는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을 기존 153km²에

서 197.8km²로 늘리는 것에 더해 오름과 꽃자왈, 해양 등 328.7km²에 이르는 지역을 새롭게 국립공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자 지정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303km²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주민반발이 여전하자 지정면적은 재차 288.5km²로 축소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지난 5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 사업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신청한 지 4년 6개월만에 계획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다혜기자

제4호 태풍 ‘에어리’ 일본으로 급선회

제주 강풍반경 밖 위치... 무더위 계속될 듯

당초 제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일본 열도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태풍 에어리는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9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94hPa, 최대풍속 초속 19m, 강풍반경 250km의 소형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태풍 에어리는 당초 제주를 관통한 뒤 부산 남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변질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2일부터 예상 진로를 동쪽 방향으로 조금씩 틀었고, 이날에는 일본 규슈에 직접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인 예상 진로는 5일 오전 3시 서귀포 남동쪽 약 190km 부근 해상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급격히 틀 것으로 보인다. 이어 5일 오후 3시에는 일본 나가사키 부근을 통해 일본 열도에 상륙한다.

제주에는 5일 오전 3~4시쯤 태풍과 가장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강풍반경 바깥 지역에 위치하겠다. 다만 태풍이 물고 온 구름으로 인해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바람도 태풍 수준은 아니지만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태풍이 에어리가 제주를 비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더위는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축 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39대 도지사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영훈 지사님

-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강인종 외 임직원 일동
-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회장 문준식 외 임직원 일동
-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회장 한성울 외 임직원 일동